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밤새껏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밤새껏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밤새껏

완성된 이름

밤새껏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밤새껏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밤이 지나는 동안 꼬박.

요약 연대표

표기	17세기	18세기	20세기	현재
밤새굿	■	-	-	-
밤셋고	■	-	-	-
밤새껏	-	-	■	■
밤새겻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밤이 지나는 동안 꼬박.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밤새껏'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밤이 지나는 동안 꼬박.

☞ 밤새껏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밤새껏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밤새굿 사전 표기 요약	—	—	●→	—	—	—
밤셋굿 사전 표기 요약	—	—	●→	●→	—	—
밤새껏 사전 표기 요약	—	—	—	—	—	●→
밤새셋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밤새굿
17세기
- 밤셋굿

17세기18세기

- 밤새껏

20세기현재

- 밤새껏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밤새곶, 밤새곶, 밤새껏, 밤새껏

↳ 밤새껏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밤새껏’은 17세기부터 ‘밤새곶’과 ‘밤새곶’으로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밤새곶’과 ‘밤새곶’은 명사 ‘밤’에 동사 ‘새-’,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고 현대어 ‘-껏’으로 이어지는 부사 파생 접미사 ‘-곶’, ‘-섯’이 결합한 것이다.

🔗 표기 방식과 특징

20세기까지 ‘밤새껏’과 ‘밤새곶’이 함께 쓰이다가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밤새껏’로 표기하게 되었다.

📖 문헌 속의 밤새껏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밤셋굿, 밤새굿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밤셋굿, 밤새굿

📖 출처 1676 첩해신어 초간본 9:3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니러섬도 싱각 아니코 기리 안자시니 무식히도 훈가 후여 밤셋굿 뉘웃죤니.

📖 현대어 풀이

일어섬도 생각 아니하고 길게 앉아 있으니, 무식하게도 하였나 하여 밤새껏 뉘우쳤습니다.

📖 출처 17세기 후반 숙취신한첩언간 16

용례 02

66 문헌 용례

머어슬 일흔 듯 밤새굿 일궤루며.

📖 현대어 풀이

무엇을 앓은 듯 밤새껏 일컬으며.

📖 출처 17세기 후반 숙취신한첩언간 25

용례 03

66 문헌 용례

훈갓 섬섬흔 무옴의 수업시 울고 밤새굿 아적긔 일컫고.

📖 현대어 풀이

한갓 섬섬한 마음에 수없이 울고 밤새껏 아침껏 일컫고.

18세기 밤셋굿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밤셋굿

출처 1781 중간개수첩해신어 9:5ㄱ

용례 04

66 문헌 용례

니러섬도 싱각지 아니코 기리 안자시니 무식히 혼 일이나 업논가 후여 밤새갓 뉘웃습니.

ㄷ ㅅ 현대어 풀이

일어섬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길게 앉아 있으니 무식히 한 일이나 없는가 하여 밤새갓 뉘우쳤습니.

20세기 밤새갓, 밤새껏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밤새갓, 밤새껏

출처 1925 동아일보 4월 13일 8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눈은 밤새갓 퍼부어서 온 거리에 숨가치 싸인 우흐로 새벽부터 바람이 건느기 시작하였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조선일보 10월 9일

용례 06

66 문헌 용례

밤새갓 울었는데 또 올라 하시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9 조선일보 3월 28일 3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애처럽게도 숨을 죽여 가며 느껴 우는 소리가 밤새갓 들려 옵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밤새갓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밤새것의 뜻과 역사](#)